

백제 집수시설 · 칠피갑옷 조각 익산토성서 발견... 일반에 공개

공주 공산성 등 이어 '세번째'
백제 문서 보관법 보여주는
봉축편 추정 목재 막대기도 확인

익산에서 고대 백제인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저수 시설과 함께 백제 시대 유물인 '칠피갑옷조각'이 발견됐다.

30일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토성(사적)에서 백제 시대 집수시설과 함께 당대 유물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이번 성과를 이날 오후 2시 30분 관련 전문가와 일반인에게 공개했다.

익산시는 국가유산청 허가를 받아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와 함께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익산토성 백제 유물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7년 조사에서는 서문지를 새로 발견했으며, 익산토성이 돌을 사용하여 쌓은 석성(石城)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여러 발굴 성과를 거뒀다.

익산시 금마면에 위치한 익산토성은 해발 125m의 오금산을 둘러싸고 있는 산성으로 일명 '오금산성'으로도 불린다. 수부(首府)명 기와를 비롯한 백제 시기 기와가 다량 출토된 것으로 미뤄 익산토성이 남쪽으로 약 2km 떨어진 '양궁리유적'과 연계된 산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 조사는 익산토성의 남쪽 곡간부 평탄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지역은 1981년 남쪽 성벽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탐색조사가 이뤄졌지만 당시에는 집수시설을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뒤 다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경이 각각 동서 9.5m, 남북 7.8m, 최대 깊이는 4.5m에 이르는 평면 원형 형태의 다듬은 거대한 석재 집수시설을 확인했다.

발굴조사단은 집수 시설의 일부는 무너져 내렸지만 하단부가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보존된 것으로 볼 때, 과거 한 차례 보수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바닥은 자연 암반을 인위적으로 깎고 다듬었으며, 특히 북동쪽은 돌이 중앙으로 유입되도록 암반을 가공했다. 남쪽에는 석재를 이용해 최대 높이 80cm 정도의 단(段)을 쌓았다.

이 집수시설 안에서는 공주 공산성, 부여 관북리 유적에 이어 세 번째로 출토된 칠피갑옷편을 비롯해 추정 봉축 목재편, 인장과 등 이 집수시설이 백제 시기에 사용됐음을 알려주는 많은 백제 기와편과 토기편이 출토되기도 했다.

특히 문서를 분류할 때 사용된 봉축편으로 추정되는 직경 2.3cm 크기의 목재 막대기에는 '정사(丁巳) 금제식(今在食: 현재 남아있는 식량)'라는 목서명이 확인됐다.



익산토성에서 발견된 백제 집수시설.



칠피갑옷조각 일부.

추후 추가 연구를 통해 해당 유물이 봉축편으로 확인될 경우 백제시기 문서 보관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자 익산토성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유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丁巳(정사: 597년 혹은 657년)' 기년을 통해 익산토성의 운용 시기도 추정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자연 지형을 이용한 유수(流水) 관리 방법과 이를 활용한 백제인의 토목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익산시는 국가유산청과 함께 익산토성의 체계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구협력 체계를 구축해 익산지역의 백제왕도 핵심 유적에 대한 학술조사를 꾸준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 순회전시' 개최

익산시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과 가치를 축약한 전시회를 마련했다.

시는 익산항일독립운동기념관에서 6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 순회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공화정의 시작', '대한민국, 여기서 시작하다'라는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전시회는 유물과 영상, 소리 등의 미디어 자료와 어린이용 체험 활동지를 통해 임시정부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특히 익산에서 활동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특파원 소진형, 이재환, 소내원 선생 관련 전시를 함께 진행해 지역 사회에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관람은 매주 화요일~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관람료는 무료이고 자세한 사항은 익산항일독립운동기념관(063-843-3339)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기릴 수 있는 전시회를 개최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와 자주독립 정신을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다가오는 단오, 단선 부채 만들어볼까?'

전통문화전당, 6월 7일 단선만들기 행사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6월 7일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지골 단오맞이 단선만들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2회에 걸쳐 회차별 25명씩 모집된 체험객을 대상으로 전주천년한지관에서 진행된다. 30일 전당에 따르면 단오 풍습을 기억하고 널리 알리고자 대나무 살 위에 한지를 붙인 단선 부채를 만들어보는 행사를 기획했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0호 방화선 선자장이 특별 강사로 함께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천년한지관 누리집(jnhn.kr)을 참고하거나 전통한지팀(063-281-1630)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무주산골영화제, 자연친화 축제로

친환경 다화용기 시스템 올해도 도입

6월 5일부터 9일까지 약 5일간 개최하는 초여름의 낭만 영화제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가 지난해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켰던 친환경 다화용기 시스템을 올해에도 도입해 자연 친화적인 축제 개최를 예고했다.

영화와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초여름 낭만 영화제 무주산골영화제가 올해 축제 기간 동안 다화용기 시스템을 도입, 또 한 번 깨끗한 축제 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지난해 무주산골영화제는 지역 축제의 고질적 병폐인 바가지요금을 비롯해 안전사고 그리고 일회용품 없는 축제로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에 올해에도 영화제 내 일회용품 쓰레기 배출량 최소화를 목표로 다화용기 사용 시스템을 실시, 환경을 찾는 관객들이 더욱 자연 속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다화용기 시스템은 원자력, 수력, 양수발전을 통해 국내 전력의 약 28%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발전회사 한국수력원자력(주)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무주산골영화제는 소도시 무주만의 정체성을 살려 국내 유일의 낭만 영화제로 자리매김했다. ESG 경영 실천을 위해 무주산골영화제와 함께 친환경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다화용기 대여 스타트업인 트래쉬버스터가 함께해 대여와 반납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관객들은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며 지속 가능한 축제를 위한 긍정적인 슬루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여행가는 달' 맞아 방문객 위한 콘텐츠 운영

6월 1일부터 태권도원 입장료 할인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입장료 할인과 체험 프로그램 등 방문객을 위한 콘텐츠를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숨은 여행찾기, 로컬 재발견'이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3월에 이어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하는 태권도진흥재단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태권도원 입장료를 50% 할인해 성인은 2,000원, 소인 및 청소년은 1,500원만 지불하면 입장할 수 있다. 입장료 할인과 함께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는 '박물관에서 태권도 즐기기'와 '스탬프 투어' 이벤트를 운영한다. 6월 마지막 주 토요일인 29일에 진행되는 '태권도 한지 드림캐처 만들기' 체험은 '오후 1시'와 '2시 30분' 총 2회 운영하며 회차별 30명 대상, 현장 접수로 진행하고 참가비는 무료이다.

또한, '스탬프 투어'는 국립태권도박물관을 비롯해 태권도원이 위치한 무주군 관내 김환태문학관, 최복미술관, 무주 곤충박물관 등 4곳의 문화시설을 둘러 장소별 1개씩의 스탬프를 모두 찍게 되면 마지막 장소에서 태권도원 할인권과 피크닉 매트 등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

